

북한이탈주민의 외상후스트레스증상과 자살행동의 관계: 사회적 지지와 외로움의 순차매개효과*

김 예 진	장 혜 인 [†]	안 지 현	홍 진 표 [‡]	정 서 현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석사 과정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부교수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석사 졸업

본 연구는 외상후스트레스증상과 자살행동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외로움의 순차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199명(남성 43명, 여성 156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기초선에서 외상후스트레스증상, 사회적 지지, 외로움, 자살행동에 대한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였다. 참가자들은 2년 후, 자살행동을 다시 보고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상후스트레스증상과 자살행동의 정적 관계가 유의하였다. 둘째, 외상후스트레스증상과 자살행동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단순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외상후스트레스증상과 자살행동의 관계에서 외로움의 단순 매개효과는 유의하였다. 넷째, 외상후스트레스증상이 사회적 지지와 외로움을 차례로 거쳐 자살행동을 예측하는 순차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외상후스트레스증상이 낮은 사회적 지지를 예측하고, 낮은 사회적 지지가 높은 외로움을 예측하여, 높은 외로움이 결국 높은 자살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외상후스트레스증상과 자살행동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외로움을 통합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나아가, 북한이탈주민 집단에 개입할 때 대인관계에 초점을 맞춘 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임상적 함의를 지닌다.

주요어 : 북한이탈주민, 자살행동, 외상후스트레스증상, 사회적 지지, 외로움

*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HM15C1072).

본 논문은 2023 APS(Association for Psychological Science) Annual Convention에서 발표한 포스터를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장혜인 /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부교수 / (0306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 Tel: 02-760-0490 / E-mail: hichang@skku.edu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홍진표 /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교실 / (06351)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 81 / Tel: 02-3410-3585 / E-mail: suhurhong@gmail.com

 Copyright ©2024, Clinical Psychology in Korea: Research and Practic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외상 사건이란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사망, 심각한 부상 또는 성폭력 노출의 위협을 수반하는 사건 등을 일컫는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APA], 2013). 외상후스트레스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는 외상 사건에 노출된 후에 과도한 각성 반응, 외상 사건의 중요한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부정적 감정이 지속되는 생각과 기분에서의 부정적 변화, 외상 사건에 대한 생각과 기억의 침투, 외상 사건과 관련된 생각 및 자극의 회피와 같은 증상으로 이어지는 정신장애이다(APA, 2013). PTSD는 우울장애, 양극성장애, 불안장애, 물질사용장애 등 다른 정신장애와 공병할 위험이 높고, 개인의 학업, 대인관계, 직업 등 일상생활 영역에서의 기능 손상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삶의 질을 손상시킬 수 있다(APA, 2013). 또한, PTSD는 이주한 국가에서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이민자 중에서도 전쟁과 학살에 대한 경험이 있는 난민에게서도 흔히 보고되는 심리적 어려움이다(Reavell & Fazil, 2017). 특히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내에서는 타인의 공개처형을 목격하거나, 탈북 과정에서는 기아, 가족과의 이별, 죽음의 위기, 심리, 신체적 고문, 성폭행 등과 같은 외상 사건을 겪을 수 있다(홍창형 외, 2005; Lee et al., 2001). 이러한 외상을 겪는 북한이탈주민의 PTSD 유병률은 약 22.8%로,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정신건강 문제 중에서도 매우 높은 유병률이며(Cha et al., 2018), 남한 주민의 PTSD 유병률인 1.5% (보건복지부, 2016)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내에서, 탈북 과정에서, 남한 입국 전까지의 체류과정과 남한 입국 후에도 여러 외상을 경험하며 PTSD 유병률이 높기 때문에 이들의 PTSD에 대한 이

해가 필요하다(김현아, 2016).

북한이탈주민은 정신건강 문제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이고 위협적인 자살행동도 많이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년간 북한이탈주민의 자살 충동 유경험자는 전체의 23.3%로, 일반 국민 유경험자 비율인 8.1%다 높았으며, 이 수치는 이전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남북하나재단, 2021).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자살사고, 자살에 대한 표현, 자살시도는 남한 주민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북한이탈주민의 자살행동이 심각한 것을 볼 수 있다(김희진, 정윤경, 2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심리적 요인이 어떻게 북한이탈주민의 자살행동을 일으키는지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자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불안과 같은 정신병리(임동균 외, 2017), 남한 사회 적응(김재경, 2020), 외상 노출 경험(황성결, 2018)과 같은 개별적 위험요인에 집중해 연구되어 왔다(남보영, 신자현, 2022). 이러한 선행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자살행동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고 자살행동과 관련이 있는 변인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북한이탈주민이 탈북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은 후에 남한으로 입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택한데 있어 이러한 요인의 구체적인 기제를 탐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PTSD는 자살행동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Bernal et al., 2007).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거론되는 외상 사건의 노출로 인해 경험할 수 있는 PTSD는 자살사고, 시도, 자살에 의한 죽음 등 모든 형태의 자살행동과 관련이 있다(Panagioti et al., 2009). 구체적으로, PTSD를 진단받은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자살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약 40%가 자살사고를 보고하며, 약 10%가 자살계획을 보고하고,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rrier & Gregg, 2004). 외상과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자살행동을 살펴본 연구로는, 남한에 입국하기 전 북한이탈여성이 경험한 성폭력 피해와 자살행동과의 관계에서 외상후스트레스증상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연구(황성결, 2018)와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자살행동의 위험요인으로 외상 노출 경험을 살펴본 연구(남보영, 신자현, 2022)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외상 관련 경험이 자살행동을 예측할 수 있음을 밝혀냈지만, 이러한 요인이 어떻게 자살행동의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기제를 살펴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외상후스트레스증상을 나타내는 개인이 어떻게 자살행동을 나타내게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제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외상후스트레스증상이 자살행동을 예측하는데 있어 대인관계와 관련된 요인인 외로움과 사회적 지지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외로움은 타인과의 사회적, 정서적 상호작용을 추구하는 욕구가 좌절될 때 경험하게 되는 고통스러운 정서 상태로 정의되며, 이는 불안과 우울, 무력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유발할 수 있다(Weiss, 1973). 자살의 대인관계 이론(interpersonal theory of suicide; Joiner, 2005)에서는 외로움을 친밀감이 훼손된 형태로, 자살행동의 예측요인이라고 보고 있다(van Orden et al., 2010). 이 이론에서는 사람이 자살을 하게 되는 매커니즘을 세 가지 구성 개념인 좌절된 소속감(thwarted belongingness), 자신이 타인에게 짐이 되는 존재라는 생각(perceived burdensomeness), 습득된 자살잠재력(acquired capability for suicide)으로 설명하고 있

다(Joiner, 2005). 좌절된 소속감은 개인이 상호간의 돌봄 관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고립감을 느낄 때 발생하며, 타인에게 짐이 되는 존재라는 생각은 개인이 타인에게 자신의 존재가 짐이 된다고 느껴 자신의 존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음을 경험하는 것을 일컫는다(Joiner, 2005; Van Orden et al., 2010). 이 이론에서는 좌절된 소속감과 타인에게 짐이 되는 존재라는 생각이 수동적인 자살사고(예, “나는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의 근접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제시한다. 또한, 이 두 요인과 함께 절망감이 존재할 때, 이는 개인의 적극적인 자살사고(예, “나는 나 자신을 죽이고 싶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제시한다(Van Orden et al., 2010). 이 이론에 따르면, 외로움은 상호적인 돌봄 관계의 부족과 함께 좌절된 소속감의 요인이며, 좌절된 소속감은 자살의 근접한 위험요인이다(Van Orden et al., 2010). 이에 따라 외로움이 자살행동을 예측하는 주요한 요인임을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로움과 함께 자살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지지의 기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외로움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개인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타인의 존재뿐만이 아니라, 개인이 타인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한다(Cacioppo et al., 2015). 대인관계에서의 질과 친밀함의 정도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빈도보다 중요하며(Mueller et al., 2022), 자살의 대인관계 이론에서도 사회적 고립과 단절이 자살행동을 중요하게 예측한다고 제시한다(Van Orden et al., 2010). 이 이론에서 좌절된 소속감은 자살행동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제시되며(Van Orden et al., 2010),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고립의 대표적인 지표로 알려져 있다(Van Orden et al., 2012).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개인은 소속감을 높게 느끼게 되며, 증가된 소속감은 자살행동을 감소시킨다(Van Orden et al., 2010).

사회적 지지와 자살행동과의 관계는 여러 경험연구에서도 입증되었다. 사회적 지지를 더 낮게 지각하는 개인은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개인보다 평생 자살시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Kleiman & Liu, 2013), 사회적 네트워크의 크기는 자살사고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renso et al., 2021). 난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타국에 새롭게 정착한 부탄 난민의 낮은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자살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Ellis et al., 2015). 이에 따라, 남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 지각하는 낮은 사회적 지지도 이들의 자살행동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PTSD와 사회적 지지의 관계에서, PTSD는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를 예측하며, PTSD를 진단받은 개인은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며, 사회적으로 철수하고 고립된다(Hofmann et al., 2003). 또한, 이들은 사회적 활동에 관심을 잃고 타인의 지지를 수용하기 어려워하며, 타인이 자신의 사회적 지지망으로 유입되는 것을 회피할 수 있다(King et al., 2006). 이에 따라 이들의 사회적 행동은 주변 이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거리를 두게 할 수 있다(Ray & Vanstone, 2009). 외상후스트레스증상과 사회적 지지의 관계의 사회적 선택 가설(Kaniasty & Norris, 2008)에서는 PTSD 진단을 받은 개인이 타인을 위협하다고 인식하여(Clapp & Beck, 2009), 이것이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초

래한다고 제시하고 있다(Shallcross et al., 2016). 이와 일관되게, PTSD와 사회적 지지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보다 엄격하게 살펴본 연구에서 PTSD는 사회적 지지를 예측하였지만, 사회적 지지는 PTSD를 예측하지 않는 것(Carter et al., 2016; King et al., 2006)을 고려할 때, 외상후스트레스증상은 사회적 지지를 예측함을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외상과 자살행동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Zheng et al., 2021). 이 연구에서 외상은 자살행동과 정적으로 관계가 있었으며, 이 관계는 사회적 지지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PTSD가 사회적 지지를 예측하고(Carter et al., 2016; Cox et al., 2019; King et al., 2006), 사회적 지지가 자살행동을 예측한다는 선행연구(Ellis et al., 2015; Kleiman & Liu, 2013)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외상후스트레스증상과 자살행동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앞서 제시한 이론과 일관적으로, 여러 경험연구에서 외로움은 자살행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Gomboc et al., 2022; McClelland et al., 2020). 메타분석 연구에서 외로움은 장기간에 걸쳐 자살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cClelland et al., 2020). 이는 오랜 기간 지속된 외로움이 개인의 자살행동에 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외로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것(박소희 외, 2021)을 고려했을 때, 이들이 겪는 외로움도 이들의 자살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상후스트레스증상과 외로움의 관계는 다음의 두 가지 설명으로 이해할 수 있다. 먼저, PTSD를 겪는 사람들의 부정응적인 대처방

식으로 이를 설명할 수 있다(Ehlers & Clark, 2000). Ehlers와 Clark(2000)의 인지 모델은 외상 후스트레스증상으로 인해 고통을 경험하는 개인의 부적응적인 대처방식에 대해 설명한다. 부적응적인 대처방식의 예시로는 악몽을 회피하기 위해 매우 늦게 잠에 드는 것이 있으며, 이러한 부적응적인 대처방식은 불쾌감을 증가시켜 사회적 관계를 해칠 수 있다(Ehlers & Clark, 2000). 이에 더해, 외상후스트레스증상을 겪는 이들은 운동, 취미와 같은 활동을 회피하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Ehlers & Clark, 2000). 앞서 제시한 모든 측면은 개인의 외로움을 증가시킬 수 있다(Ehlers & Clark, 2000). 다음으로, 외상 사건 이후의 외로움은 사회비교 이론(Festinger, 1954)으로 설명될 수 있다(Brewin et al., 1989). 이 이론에서는 개인이 흔히 자신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타인과 자신을 비교한다고 제시한다(Brewin et al., 1989). 이것을 개인의 자신의 감정과 심리적 상태에 대한 평가에 적용하면, 개인이 자신의 감정이 일반적이지 않은 감정이라고 인식할 경우, 정상적이라고 지각되는 타인과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과 연결지을 수 있다(Brewin et al., 1989). 외상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들의 감정과 행동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느껴, 그들이 정상적이라고 지각하는 타인으로부터 철수하여 이것이 외로움을 증가시킬 수 있다(Brewin et al., 1989).

경험연구에서도 외상 사건을 경험한 개인은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Kuwert et al., 2014), 외상후스트레스증상은 외로움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Itzhaky et al., 2017). 이는 외상 사건을 경험한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 경험을 공유하기 어려워하며, 소외감을 느

낀다는 설명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결과이다(Stein & Tuval-Mashiach, 2015). 외상 사건 경험자 중 외상후스트레스증상이 높은 사람들은 외상후스트레스증상이 낮은 개인과 외상 사건 무경험자보다 이후 높은 수준의 외로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van der Velden et al., 2018). 북한이탈주민의 외상후스트레스증상 또한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외로움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며, 외상후스트레스증상은 외로움에 대한 개인의 취약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처럼 사회적 지지와 외로움 모두 자살행동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사회적 지지는 외로움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연구되어 왔다. 외로움은 사회적 관계망이 양적 또는 질적으로 부족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사회적 관계망 안에서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는 외로움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제시된다(안서진, 2006; Perlman & Peplau, 1984). 즉,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관계 및 사회적 상황에서 변화에 대해 적응하고 위기에 따른 대처 능력을 촉진시키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기능의 저하는 사회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외로움을 예측할 것이다(안서진, 2006; Cohen, 2004). 외로움은 특히 개인이 원하는 사회적 관계와 실제 개인이 성취했다고 지각하는 관계 사이의 괴리가 발생할 때 나타난다(Eshbaugh, 2010). 이처럼 개인은 사회적 관계에서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타인으로부터 수용과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지각하고, 타인과 유대감을 형성하지 못할 때,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안서진, 2006). 경험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와 외로움은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 사회적 지지는 외로움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en et al., 2014; Kuo et al., 2021).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이민자들의 외로움을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은 사회적 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Kim, 1999). 즉, 개인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고,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외로움을 비교적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윤경숙, 하정희, 2021).

종합하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자살행동의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는 존재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와 외로움과 같은 대인관계와 관련된 요인들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집단을 대상으로 외상후스트레스증상과 자살행동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외로움의 순차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외상후스트레스증상이 자살행동을 예측하는 경로를 설명하는 대인관계적 기제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외상후스트레스증상은 자살행동과 정적 관계가 있을 것이다. 즉, 외상후스트레스증상이 높을수록 자살행동도 높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2. 외상후스트레스증상과 자살행동의 관계를 사회적 지지가 매개할 것이다. 이때, 외상후스트레스증상은 사회적 지지를 부적으로, 사회적 지지는 자살행동을 부적으로 예측할 것이다.

가설 3. 외상후스트레스증상과 자살행동의 관계를 외로움이 매개할 것이다. 이때, 외상후스트레스증상은 외로움을 정적으로, 외로움은 자살행동을 정적으로 예측할 것이다.

가설 4. 외상후스트레스증상은 사회적 지지와 외로움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자살행동을 예측할 것이다. 이때, 외상후스트레스증상은 사회적 지지를 부적으로 예측하고, 사회적 지지는 외로움을 부적으로 예측할 것이며, 외로움은 자살행동을 정적으로 예측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5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들이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및 추적관찰 자료(김다운 외, 2018; 이경은 외, 2018)를 바탕으로 하였다. 실태조사는 전국 하나센터에 등록된 북한이탈주민 중 최근 남한에 3년 이내에 입국하였고, 18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참가자들은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이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 혹은 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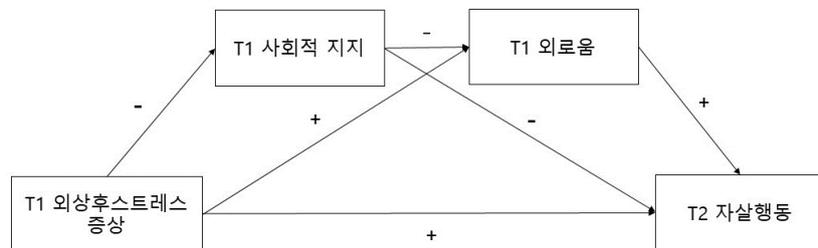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적 고통을 경험하는 경우, 답변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안내에 따라 상담 및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199명(남성 43명, 여성 156명)으로, 연령 범위는 20~74세였으며, 평균 연령은 40.45세($SD = 11.94$)였다. 첫 번째 평가시기(T1)에는 추적관찰 1년차 자료를, 두 번째 평가시기(T2)에는 추적관찰 3년차 자료를 사용하였다. 참가자들은 T1에 외상후스트레스증상, 사회적 지지, 외로움, 자살행동과 관련된 자기보고식 설문지에 응답했으며, 자살행동에 대한 설문은 2년 후(T2)에 재응답하였다. 이탈분석 결과, T1에 참가한 199명 중 152명이 T2 자료수집에 참여했으며, T2에 참여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T1에 측정된 성별, 연령, 외상후스트레스증상, 사회적 지지, 외로움, 자살행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모든 $t < 1.05$, w). 본 연구는 임상연구위원회의 승인(IRB No. SMC 2015-05-042-016)을 받았다.

측정도구

외상후스트레스증상

외상후스트레스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Horowitz 외(1979)가 개발하고, Weiss(2007)이 DSM-IV에 맞춰 수정한 개정판 사건충격척도(Impact of Event Scale-Revised, IES-R)를 북한어로 번안 및 타당화한 북한어판 사건충격척도 수정판(원성두 외, 2015)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2문항으로 구성되며,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측정한다(예, “나는 마치 일이 일어났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간 것처럼 느끼거나 행동할 때가 있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0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5

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외상후스트레스증상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5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는데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척도(Zimet et al., 1988)를 참고하였다. 해당 척도에서 핵심적으로 측정하고 있는 가족, 친구, 중요한 타인과 같은 사회적 자원으로부터의 지지를 측정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가족, 친척, 친구 등 주변 사회적 관계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얼마나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지와 실제 생활에서 가족, 친척, 친구 등의 주위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두 가지 문항을 사용했다. 각 문항은 ‘전혀 없음’(0점)에서 ‘충분히 받고 있다’(10점)까지로 구성된 11점 리커트 척도로, 총점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76으로 나타났다.

외로움

외로움을 측정하기 위해 UCLA 외로움 척도(UCLA Loneliness Scale) 한글판(Kim, 1997)을 사용하였다. UCLA 외로움 척도는 외로움의 주관적인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되었다(Russell et al., 1978).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로 구성된 4점 리커트 척도로, 원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어 연구자 1명이 번역하고, 북한이탈주민 2명으로부터 감수받는 과정을 거쳐, 자료 수집의 용이성을 위하여 10문항으로 구성된 축약판을 사용하였

다(예, “나는 소외감을 자주 느낀다.”). 총점이 높을수록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9로 나타났다.

자살행동

자살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자살행동을 측정 한 여러 선행연구(Asante et al., 2017; Shek & Yu, 2012)에서 자살사고, 자살시도, 자살계획 여부에 대해 질문하는 내용을 참고하여, 다음 세가지 문항을 사용하였다. 지난 1년간 자살에 대해 사고한 적이 있는지, 자살을 하려고 계획을 한 적이 있는지,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지, 자살사고, 자살계획, 자살시도를 각각 문항씩 질문하였다. 참가자들은 각 질문에 ‘예’, ‘아니오’로 응답을 하였으며, ‘아니오’로 응답한 경우, 0으로, ‘예’라고 응답한 경우, 1로 코딩하여 각 세 질문에 대한 응답의 합을 구하여 자살행동을 측정하였다. 총점이 높을수록 자살행동을 많이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독립표본 t 검정을 이용해 성별과 동거인 유무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T1 외상후스트레스 증상과 T2 자살행동의 관계에서 T1 사회적 지지와 T1 외로움의 단순매개효과와 T1 사회적 지지와 T1 외로움의 순차매개효과를 탐색하기 위해 Process Macro의 model 6을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해 표본 수를 10,000개로 설정하고 95% 신

뢰수준에서 부트스트래핑 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분석에서 T1 자살행동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여 T1 시점에 측정한 외상후스트레스 증상, 사회적 지지, 외로움이 T2 시점의 자살행동을 예측하는 방향성에 대한 엄정한 분석을 목표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기술통계치 및 상관분석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정규분포 가정을 만족하기 위해 자살행동을 로그 변환하였으며, 해석의 수월성을 위해 기술통계치는 로그 변환 이전의 값으로 제시하고, 이후 분석에는 로그 변환한 값을 사용하였다. 기술통계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외상후스트레스증상은 36.12($SD = 19.64$)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판 사건충격척도 수정판(은현정 외, 2005)에서의 PTSD 선별 절단점 24/25점을 넘는 수치로, 약 중등도의 수준에 해당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지지는 10.07($SD = 5.57$), 외로움은 18.94($SD = 5.21$), T1 자살행동은 0.23($SD = 0.60$), T2 자살행동은 0.30($SD = 0.72$)로 나타났다. 빈도분석 결과, 북한이탈주민이 T1 자살사고, 자살계획, 자살시도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12.6%, 4.5%, 5.5%, T2 자살사고, 자살계획, 자살시도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16.4%, 7.2%, 6.6%로, 남한 인구를 대상으로 한 패널 자료에서의 각 비율인 12.2%, 2.2%, 1.5%(김지훈, 김경호, 2018)보다 높은 비율이다.

상관분석 결과, 종속변인인 T2 자살행동은 T1 외상후스트레스증상($r = .31, p < .001$), 외

표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1	2	3	4	5
1. T1 외상후스트레스증상	-				
2. T1 사회적 지지	-.22**	-			
3. T1 외로움	.46***	-.36***	-		
4. T1 자살행동	.39***	-.14*	.28***	-	
5. T2 자살행동	.31***	-.18*	.33***	.32***	-
평균	36.12	10.07	18.94	0.23	0.30
표준편차	19.64	5.57	5.21	0.60	0.72

* $p < .05$. ** $p < .01$. *** $p < .001$.

로움($r = .33, p < .001$), T1 자살행동($r = .32, p < .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 T1 사회적 지지($r = -.18, p < .05$)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두 번째로 독립변인인 T1 외상후스트레스증상은 T1 사회적 지지($r = -.22, p < .01$)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 T1 외로움($r = .46, p < .001$)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매개변인인 T1 사회적 지지와 T1 외로움은 서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r = -.36, p < .001$). 통제변인인 T1 자살행동은 T1 외상후스트레스증상($r = .39, p < .001$), T1 외로움($r = .28, p < .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 T1 사회적

지지($r = -.14, p < .05$)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참가자의 성별에 따른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T1 외상후스트레스증상($t = -3.39, p < .01$)과 T1 자살행동($t = -2.73, p < .01$), T2 자살행동($t = -4.28, p < .001$)에서 성별에 따른 평균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후 분석에서는 성별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했다. 참가자가 배우자 또는 동거인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T1 외상후스트레스증상($t = 2.39, p < .05$)과 T2 자살행동($t =$

표 2. 성별에 따른 독립표본 t 검정 결과

변인	평균(표준편차)		t
	남성	여성	
T1 외상후스트레스증상	28.64(14.80)	38.16(20.33)	-3.39**
T1 사회적 지지	11.44(5.57)	9.69(5.52)	1.84
T1 외로움	18.14(4.63)	19.16(5.36)	-1.12
T1 자살행동	0.05(0.18)	0.16(0.36)	-2.73**
T2 자살행동	0.02(0.12)	0.21(0.41)	-4.28***

** $p < .01$. *** $p < .001$.

표 3. 동거인 유무에 따른 독립표본 *t* 검정 결과

변인	평균(표준편차)		<i>t</i>
	유	무	
T1 외상후스트레스증상	31.77(15.24)	38.13(21.12)	2.39*
T1 사회적 지지	10.79(5.81)	9.80(5.49)	-1.16
T1 외로움	18.02(3.97)	19.36(5.65)	1.90
T1 자살행동	0.08(0.22)	0.16(0.37)	1.84
T2 자살행동	0.09(0.27)	0.21(0.43)	2.12*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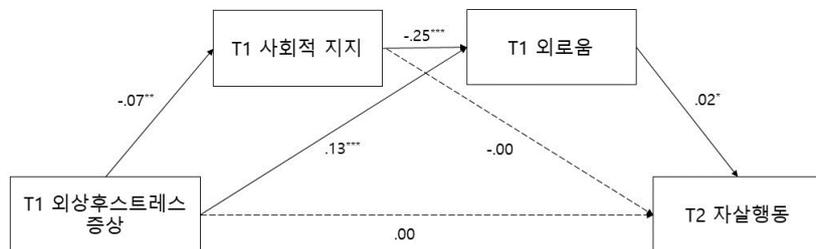
2.12, $p < .05$)에서 이에 따른 평균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후 분석에서는 동거인과의 거주 여부를 통제변인으로 함께 투입하였다.

외상후스트레스증상과 자살행동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외로움의 순차매개효과

T1 외상후스트레스증상과 T2 자살행동의 관계에서 T1 사회적 지지와 T1 외로움의 순차매개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Process Macro의 model 6을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T1 외상후스트레스증상은 T1 사회적 지지를 유의하게 예측하였고($B = -.07, p$

$< .01$), T1 사회적 지지는 T1 외로움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B = -.25, p < .001$), T1 외로움은 T2 자살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B = .02, p < .05$). T1 외상후스트레스증상은 T1 사회적 지지를 거치지 않고 T1 외로움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B = .13, p < .001$)으로 나타났다으며, T1 사회적 지지가 T1 외로움을 거치지 않고 T2 자살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 = -.00, ns$). 마지막으로, T1 외상후스트레스증상이 T1 사회적 지지 및 T1 외로움을 매개로 하지 않고 T2 자살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 = .00, ns$).

간접효과에 대한 부트스트래핑 분석 결과를



유의한 경로는 실선, 유의하지 않은 경로는 점선으로 표기
모든 경로는 비표준화된 계수(β),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2. 외상후스트레스증상과 자살행동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외로움의 순차매개효과

표 4. 외상후스트레스증상과 자살행동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외로움의 매개효과

	B	S.E.	95%CI	
			LL	UL
총효과	.004	.00	.00	.01
직접효과	.00	.00	-.00	.01
총간접효과	.002	.00	.00	.00
T1 외상후스트레스증상 -> T1 사회적 지지 -> T2 자살행동	.00	.00	-.00	.00
T1 외상후스트레스증상 -> T1 외로움 -> T2 자살행동	.002	.00	.00	.00
T1 외상후스트레스증상 -> T1 사회적 지지 -> T1 외로움 -> T2 자살행동	.0003	.00	.00	.00

주. CI=Confidence Interval, LL=Lower Limit, UL=Upper Limit

표 4에 제시하였다. T1 외상후스트레스증상이 T1 사회적 지지를 통해 T2 자살행동을 예측하는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 = .00, 95% CI = [-.00, .00]. T1 외상후스트레스증상이 T1 외로움을 통해 T2 자살행동을 예측하는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 = .002, 95% CI = [.00, .00]. T1 외상후스트레스증상이 T1 사회적 지지와 T1 외로움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T2 자살행동을 예측하는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 B = .0003, 95% CI = [.00, .00].

논 의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외상후스트레스 증상과 자살행동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요인인 사회적 지지와 외로움의 역할을 통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자살 고위험군인 북한이탈주민의 자살행동을 예측하는 심리적 기제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을 중심으로 주요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상후스트레스증상은 자살행동과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이 지지되었다. 그동안 선행연구에서는 PTSD가 자살행동과 관련이 높음이 지지되어 왔으며, 특히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많은 외상에 노출되는 난민에게서도 이 관계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anagioti et al., 2009). 이러한 결과는 외상후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외로움, 절망, 불안, 두려움 등의 부정 정서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높아져 자살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선행연구(이애영, 김영근, 2020)와 일관적이다. 북한이탈주민 역시 탈북 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외상을 경험하는데, 북한 내에서는 가족이나 친척의 죽음을 목격하고, 탈북 과정에서는 탈출 과정 중에 생명의 위협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홍창형 외, 2005). 선행연구에서는 외상의 종류에 따라 자살행동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제안하기도 하였으며, 가까운 사람의 외상 경험과 생명에 위협적인 사건 경험과 같은 외상 사건은 자살행동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LeBouthillier et al., 2015).

둘째, 사회적 지지는 외상후스트레스증상이 자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유의하게 매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가 지지되지 않았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외상과 자살행동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 기능함(예, Zheng et al., 2021)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매개변인의 기능을 수행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외상후스트레스증상은 사회적 지지를 유의하게 예측했지만, 사회적 지지는 자살행동을 예측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상후스트레스증상이 자살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있어 낮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우며, 추가적인 기제에 대한 탐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더해,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자살의 근접한 요인이 아님을 제안하기도 하였다(Hollingworth et al., 2018). 예를 들면, 사회적 지지는 타인에게 짐이 된다는 생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자살행동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ollingworth et al., 2018). 나아가 사회적 지지가 외상후스트레스증상과 자살행동을 유의하게 매개하지 않은 본 결과는 사회적 지지의 하위차원에 따라 자살행동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사회적 지지와 자살행동을 함께 살펴본 선행연구를 보면, 부모, 친구, 교사의 지지가 모두 자살행동을 감소시킨 연구(차미영, 강승호, 2010)도 있었지만, 친구의 지지가 자살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부모의 지지가 자살행동을 감소시킨 연구(홍영수, 2009)가 있어, 또래지지, 가족지지, 교사지지에 따라 자살행동과의 관계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 친척, 친구의 지지를 합쳐서 질문하였는데, 이를 하위요인

으로 나누어 살펴본다면, 지지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각 지지원이 자살을 예방하는데 있어서의 그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외상후스트레스증상과 자살행동의 관계에서 외로움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이 지지되었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외상후스트레스증상이 외로움을 예측하고(예, Itzhaky et al., 2017), 외로움이 자살행동을 예측함(예, Gomboc et al., 2022; McClelland et al., 2020)을 제안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외상후스트레스증상과 자살행동의 관계에서 외로움이 매개변인으로 기능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외상 경험의 결과로 사건에 대한 재경험, 외상 관련 자극에 대한 회피와 같은 외상후스트레스증상을 호소하는 개인들은 자신이 주변 환경으로부터 고립되었다고 인식하면서 주관적인 고통감(즉, 외로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자살행동의 증가로 연결되었다. 다시 말해, 본 모형에서 외로움은 자살행동의 근접한 위험요인으로써 외상후스트레스증상과 자살행동을 연결하였다. 이는 자살의 대인관계 이론(Joiner, 2005)을 토대로 자살행동의 예측요인으로써 외로움의 역할을 강조한 선행연구 흐름(예, McClelland et al., 2020)에 외상후스트레스증상과 외로움의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 흐름(예, Itzhaky et al., 2017)을 수렴하여 경험적으로 검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외상후스트레스증상이 그 자체로는 자살 위험을 높이지 않지만, 외상후스트레스증상이 높아지면 외로움도 높아져서 자살행동을 나타낼 위험이 높아진다는 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의 자살행동에 개입하는데 있어서 외로움의 역할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외로움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고립, 분리될 때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은 것(Cacioppo et al., 2015)을 고려하면, 높은 비율의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생활하는 것(한샘 외, 2011)이 이들의 외로움과 관계가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외로움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경험적으로 검증된 개입인 사회적 접촉의 기회를 늘리는 것(예, 사회적 레크레이션, 사회적 지지를 늘리는 프로그램(예, 멘토링 프로그램), 사회적 기술에 초점을 맞춘 개입(예, 칭찬을 주고받는 것), 부적응적 인지를 다루는 개입(예, 인지행동치료)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외로움을 다루는 것이 이들의 자살 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다(Cacioppo et al., 2015).

넷째, 외상후스트레스증상과 자살행동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외로움의 순차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4가 지지되었다. 더 구체적으로, 외상후스트레스증상이 자살행동을 예측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아, 완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즉, 외상후스트레스증상 홀로 자살행동을 예측하지는 않으나, 외상후스트레스증상이 높은 개인이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하여 이것이 높은 외로움으로 전환되면, 외로움을 통해 자살행동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외상이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자살행동을 예측하였다는 선행연구(Zheng et al., 2021)와 외상후스트레스증상이 외로움을 예측하고(Itzhaky et al., 2017), 외로움이 자살행동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Gomboc et al., 2022; McClelland et al., 2020)의 결과를 확장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외상 사건을 경험함으로써 인해 외상후스트레스증상을 보이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타인과 상호작용하는데 어려

움을 느끼며(King et al., 2006), 이로 인해 타인으로부터 지지를 받는다고 지각하는 수준이 낮아, 대인관계로부터 단절되었다는 인식에 기인한 외로움을 경험하고, 이것이 자살행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낮은 사회적 지지가 북한이탈주민의 외상후스트레스증상과 자살행동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연결하지는 않으나 외로움을 증가시킴으로써 간접적인 위험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외상후스트레스증상이 자살행동으로 이어지는 매커니즘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외국으로 이주한 한국인 이민자의 외로움을 예측함을 밝힌 Kim(1999)의 연구 결과와 일관되며, 동시에 사회적 지지의 부족이 자살행동을 직접적으로 예측하기보다는 타인에게 짐이 되는 존재라는 생각과 같은 다른 심리적 요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Hollingworth 외(2018)의 제안을 지지한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외로움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가한 것(박소희 외, 2021)을 고려하면, 외로움은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해소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외로움은 자살행동 외에도 우울과 같은 정신병리(Cacioppo et al., 2006)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의 외로움을 완화시키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외상후스트레스증상을 호소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예방 및 개입 과정에서 외로움의 완화에 더하여 건강하고 지지적인 사회적 연결망 구축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를 지닐 것이라 여겨진다.

본 연구는 탈북 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외상을 경험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보이는 자살행동

에 영향을 미치는 대인관계 기제를 경험적으로 살펴보았다는 함의가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자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대인관계 요인인 사회적 지지(Kleiman & Liu, 2013)와 외로움(Gomboc et al., 2022; McClelland et al., 2020)을 모형에 함께 포함함으로써 보다 통합적인 관점에서 외상후스트레스증상이 자살행동을 예측하는 기제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북한이탈여성의 자살행동을 살펴본 연구에서, 북한이탈여성은 소외감을 자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자살예방을 위해 사회적 지지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되었다(김재엽 외, 2013). 이러한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지지와 외로움을 모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와 외로움을 모두 포함하였을 뿐 아니라, 선행연구(Zhang & Dong, 2022)에 기반하여 사회적 지지가 외로움에 선행하는 경로를 포함한 통합 모형을 검증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외상후스트레스증상이 자살행동으로 이어지는 대인관계 중심의 기제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였다.

본 연구는 외상후스트레스증상이 높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자살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대인관계에 초점을 둔 개입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임상적 함의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외로움은 사회적 연결의 단절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제시된다(염유식, 김여진, 2011). 북한이탈주민은 탈북 과정에서 기존에 북한에서 보유하고 있던 사회적 지지 체계를 잃게 되고, 남한에 정착한 후에도 여러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남한 인구보다 부족한 사회적 지지 기반을 가질 수밖에 없다(김병창, 유시은, 2010; 염유식, 김여진, 2011). 경험연구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의 절반 이상이 가족과

단절되어 있으며, 일부는 주변 이웃이나 지인과 교류 없이 고립되어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샘 외, 2011). 국외 난민 연구들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 개입을 제공하는 것은 난민의 외로움을 감소시키고, 난민이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것으로 나타났다(Stewart et al., 2011; Stewart et al., 2012).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를 고려한 개입을 제공하는 것이 이들의 외로움을 감소시켜 이들의 자살행동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위기 반응계획(crisis response planning; CRP)은 자살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고안된 대표적인 근거 기반 프로그램이다(유성은, 김효중, 2019). 이 접근은 자살위기 상황에서 대처 계획을 세우게 하는 단기 개입방법으로, 자살위기 시 경고 신호를 알아차리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게 하며,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과 살아야 하는 이유 등에 대해 다룬다(Bryan et al., 2017). 이 개입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구성요소로 포함하여, 치료자와 환자가 협동하여 “과거 스트레스 상황에 처했을 때 누가 도왔는지”와 “지금 위기 상황에 처한다면 누구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이 편할지”에 대해 다룬다(Bryan et al., 2017).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자살에 대해 다룬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트라우마 중심 케어(trauma-informed care; TIC)’를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김준범, 전진호, 2021). TIC는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의 삶에서 외상의 영향을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이해한 내용을 서비스를 제공하고 설계할 때 적용하고자 하는 접근으로, 이 관점과 자살 연구의 통합이 시도되고 있다(Procter et al., 2023; Quijada et al., 2021). TIC에서는 강한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외상의 역기능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제시한다(Wilson et al., 2013). 북한이탈주민의 자살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사회적 지지 기반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CRP와 TIC를 통합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서비스를 보완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몇 가지 제한점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만을 대상으로 연구했으므로 연구 결과를 임상 집단 등에 바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자살행동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자살행동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고, 이들이 자살행동을 일으키는 기제를 탐색한 연구가 적은 것을 고려할 때 본 연구가 가지는 시사성은 충분하다. 후속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뿐 아니라 PTSD 환자군이나 자살위험군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해 본 연구에서 밝힌 변인간의 관계가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자료수집은 자기보고식 측정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한계가 있어, 참가자의 망각이나 왜곡이 응답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더해 본 연구에는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타당화되지 않은 두 문항을 사용했다는 한계가 있다.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척도(Zimet et al., 1988)에서는 가족, 친구, 중요한 타인과 같은 사회적 자원으로부터의 지지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적은 질문 문항 개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주요하게 측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는 주요한 요소를 포함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에서 자살행동을 측정하는 문항은 타당화되지 않았

으며, 자살사고, 자살계획, 자살시도의 여부를 합하는 방식으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자살행동을 측정할 방식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자살행동을 측정할 시, 자살사고, 자살계획, 자살시도에 대한 응답을 ‘예’, ‘아니오’의 형태로 조사한 것(예, Asante et al., 2017)과 유사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자살행동을 측정할 방식은 참가자가 자살사고, 자살계획, 자살시도를 하는지 여부의 값에 대한 평균으로 자살행동을 측정할 Shek 과 Yu (2012)의 연구와 유사하며, 해당 연구에서 저자들은 질문의 내용이 연구 참가자들의 일반적인 자살 경향성을 대표한다고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자살행동’을 측정할 때 질문하고 있는 자살사고, 자살계획, 자살시도(Asante et al., 2017; Nock et al., 2010)를 포함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살행동에 대한 질문의 내용이 실제 지난 1년간 자살하는 것에 대해 사고, 계획, 시도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임을 고려하여 종속변인을 ‘자살행동’으로 명명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의 측정방식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타당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항들이 자살행동을 측정하는지에 대한 연구 변인 측정의 타당성의 한계에 더해 북한이탈주민이 해당 질문들에 대한 내용을 본래 자살행동을 질문하려는 의도에 맞게 이해하고 답하였는지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더해, 자살사고, 자살계획, 자살시도를 했는지의 여부를 평가함에 따라 각각의 항목에 대한 심각도는 알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가 가진 한계를 보완하여 자료수집 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타당화된 설문지를 사용하고 이외에도 구조화된 면담 또는 관찰자 평정과 같은 더 다양한 측정방법

을 종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종단자료를 사용하였으나, 변인 간의 선후 관계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더 구체적으로, 본 연구결과를 통해 자살행동을 제외하고는 다른 변인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확인할 수 없다.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살펴본 변인간의 관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지속되고 변화하는지 짧은 시간 간격을 두고 더 자주 측정하는 방식을 활용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한계점이 있으나, 본 연구는 외상후스트레스증상이 높은 북한이탈주민에게서 나타나는 사회적 지지와 외로움의 기제를 통합하여 이러한 기제가 자살행동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존재한다. 외상후스트레스증상이 높은 집단에서 나타나는 낮은 사회적 지지와 높은 외로움이 자살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본 연구결과는 외상후스트레스증상이 높은 북한이탈주민의 자살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개입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임상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참고문헌

김다운, 안지현, 이경은, 문승연, 진진용, 장혜인, 홍진표 (2018).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실태. *대한불안학회지*, 14(1), 28-35.
<https://www.riss.kr/link?id=A105349067>

김병창, 유시은 (2010). 북한이탈주민 패널 연구: 경제·정신보건·신체건강.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https://www.riss.kr/link?id=A108590321>

김재경 (2020).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과 자살생각에 대한 관계: 절망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https://www.riss.kr/link?id=T15681994>

김재엽, 최권호, 채지훈, 황현주 (2013). 탈북여성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사회복지연구*, 44(2), 33-56.
<https://doi.org/10.16999/kasws.2013.44.2.33>

김준범, 전진호 (2021). 북한이탈주민의 PTSD와 우울의 동반이환과 자살시도에 관한 연구.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49(4), 56-78.
<https://doi.org/10.24301/MHSW.2021.12.49.4.56>

김지훈, 김경호 (2018). 자살생각, 자살계획 및 자살시도와 관련된 유발요인의 영향력 분석: 6차년도 한국복지패널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2), 344-360.
<https://doi.org/10.5392/JKCA.2018.18.02.344>

김현아 (2016).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과 PTSD에 관한 메타분석.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12(1), 105-124.
<https://www.riss.kr/link?id=A101765149>

김희진, 정윤경 (2015).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과 자살생각의 관계 및 자존감의 조절효과. *사회연구*, 16(1), 9-46.
<https://www.riss.kr/link?id=A100653108>

남보영, 신자현 (2022).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자살생각과 시도의 위험요인: 자살의 대인관계이론을 중심으로.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50(2), 90-111.
<https://doi.org/10.24301/MHSW.2022.06.50.2.90>

남북하나재단 (2021). 2021년 북한이탈주민사회통합조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https://www.koreahana.or.kr/fileDirectDownload.do?uniqueKey=62d721bb8b4123403d2da082ceda50dd&filename=&downname=202202211107325139.pdf>
- 박소희, 홍진표, 안지현, 이혜린, 김명현, 장혜인 (2021).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의 종단적 추세: 외로움, 우울, 삶의 만족도에 대한 4년 추적 연구. *대한불안학회지*, 17(2), 49-58.
<https://doi.org/10.24986/anxmod.2021.17.2.001>
- 보건복지부 (2016). 2016년도 정신질환실태조사.
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46&list_no=357650&seq=1
- 안서진 (2006). 사회적 지지와 자기개념이 알코올 의존자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https://www.riss.kr/link?id=T10340902>
- 염유식, 김여진 (2011).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연결망 형성과 유형에 대한 근거 이론 연구. *한국사회학회*, 45(2), 91-129.
<https://www.riss.kr/link?id=A82582182>
- 원성두, 이소희, 홍진표, 전진용, 한정미, 신미녀, 안명희, 이태엽 (2015). 북한어판 사건 충격척도 수정판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신경정신의학*, 54(1), 97-104.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971517>
- 유성은, 김효중 (2019). 자살행동의 근거기반 치료.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8(4), 400-414.
<https://doi.org/10.15842/kjcp.2019.38.4.006>
- 윤경숙, 하정희 (2021).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비자살적 자해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 능력에 의해 조절된 외로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3(3), 1155-1177.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749299>
- 은현정, 권태완, 이선미, 김태형, 최말례, 조수진 (2005). 한국판 사건충격척도 수정판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신경정신의학*, 44(3), 303-310.
<https://www.riss.kr/link?id=A75056419>
- 이경은, 안지현, 김다운, 문승연, 홍진표 (2018). 북한이탈주민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임상적 특성. *대한불안학회지*, 14(2), 80-87. <https://www.riss.kr/link?id=A105940002>
- 이애영, 김영근 (2020).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와 자살사고의 관계: 정서접근적 대처와 심리적 극통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3), 1417-1439.
<https://doi.org/10.23844/kjcp.2020.08.32.3.1417>
- 임동균, 박수빈, 김승현, 임우영, 전진용 (2017). 탈북 청소년의 정신 병리와 자살과의 관련성. *정신신체의학*, 25(2), 95-100.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306913>
- 차미영, 강승호 (2010). 고등학생의 자살생각에 대한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및 우울의 효과. *교육학연구*, 48(2), 93-122. <https://www.riss.kr/link?id=A104844995>
- 한샘, 남석인, 김윤경 (2011).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성역할태도가 남한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

- 15(1), 189-218.
<https://www.riss.kr/link?id=A82675316>
- 홍영수 (2009).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가 자살 계획에 영향과 사회적 지원의 완충효과. *임상사회사업연구*, 6(1), 159-181.
<https://www.riss.kr/link?id=A76382853>
- 홍창형, 전우택, 이창호, 김동기, 한무영, 민성길 (2005). 북한이탈주민들의 외상경험과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의 관계. *신경정신의학*, 44(6), 714-720.
<https://www.riss.kr/link?id=A75056473>
- 황성결 (2018). 탈북여성의 남한 입국 전 성폭력 피해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의 매개효과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https://www.riss.kr/link?id=T14760396>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https://doi.org/10.1176/appi.books.9780890425596>
- Arenson, M., Bernat, E., De Los Reyes, A., Neylan, T. C., & Cohen, B. E. (2021). Social support, social network size, and suicidal ideation: A nine-year longitudinal analysis from the Mind Your Heart Study.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135, 318-324.
<https://doi.org/10.1016/j.jpsychires.2021.01.017>
- Asante, K. O., Kugbey, N., Osafo, J., Quarshie, E. N. B., & Sarfo, J. O. (2017). The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suicidal behaviours (ideation, plan and attempt) among adolescents in senior high schools in Ghana. *SSM-population Health*, 3, 427-434.
<https://doi.org/10.1016/j.ssmph.2017.05.005>
- Bernal, M., Haro, J. M., Bernert, S., Brugha, T., de Graaf, R., Bruffaerts, R., Lépine J. P., de Girolamo, G., Vilagut, G., Gasquet I., Torres, J. V., Kovess, V., Heider, D., Neeleman, J., Kessler, R., Alonso, J., & ESEMED/MHEDEA Investigators. (2007). Risk factors for suicidality in Europe: results from the ESEMED study.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01(1-3), 27-34.
<https://doi.org/10.1016/j.jad.2006.09.018>
- Brewin, C. R., MacCarthy, B., & Furnham, A. (1989). Social support in the face of adversity: The role of cognitive appraisal.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3(3), 354-372.
[https://doi.org/10.1016/0092-6566\(89\)90007-X](https://doi.org/10.1016/0092-6566(89)90007-X)
- Bryan, C. J., Mintz, J., Clemans, T. A., Leeson, B., Burch, T. S., Williams, S. R., Maney, E., & Rudd, M. D. (2017). Effect of crisis response planning vs. contracts for safety on suicide risk in US Army soldiers: a randomized clinical trial.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12, 64-72.
<https://doi.org/10.1016/j.jad.2017.01.028>
- Butler, L. D., Critelli, F. M., & Rinfrette, E. S. (2011). Trauma-informed care and mental health. *Directions in Psychiatry*, 31(3), 177-192.
https://www.researchgate.net/profile/Lisa-Butler-5/publication/234155324_Trauma-Informed_Care_and_Mental_Health/links/02bfe50f9b4cbb8051000000/Trauma-Informed-Care-and-Mental-Health.pdf
- Cacioppo, J. T., Hughes, M. E., Waite, L. J., Hawkey, L. C., & Thisted, R. A. (2006). Loneliness as a specific risk factor for depressive symptoms: cross-sectional and

- longitudinal analyses. *Psychology and Aging*, 21(1), 140-151.
<https://doi.org/10.1037/0882-7974.21.1.140>
- Cacioppo, S., Grippo, A. J., London, S., Goossens, L., & Cacioppo, J. T. (2015). Loneliness: Clinical import and interventions.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10(2), 238-249.
<https://doi.org/10.1177/1745691615570616>
- Carter, S. P., DiMauro, J., Renshaw, K. D., Curby, T. W., Babson, K. A., & Bonn-Miller, M. O. (2016). Longitudinal associations of friend-based social support and PTSD symptomatology during a cannabis cessation attempt.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38, 62-67.
<https://doi.org/10.1016/j.janxdis.2016.01.008>
- Cha, J., Surkan, P. J., Kim, J., Yoon, I. A., Robinson, C., Cardozo, B. L., & Lee, H. (2018). Human rights as political determinants of health: A retrospective study of North Korean Refugees.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55(2), 271-279.
<https://doi.org/10.1016/j.amepre.2018.04.006>
- Chen, Y., Hicks, A., & While, A. E. (2014). Loneliness and social support of older people in China: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Health & Social Care in the Community*, 22(2), 113-123. <https://doi.org/10.1111/hsc.12051>
- Clapp, J. D., & Beck, J. G. (2009).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TSD and social support: The role of negative network orientation.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7(3), 237-244.
<https://doi.org/10.1016/j.brat.2008.12.006>
- Cohen, S. (2004). Social relationships and health. *American Psychologist*, 59(8), 676-684.
<https://doi.org/10.1037/0003-066X.59.8.676>
- Cox, D. W., Baugh, L. M., McCloskey, K. D., & Iyar, M. (2019). Social causation or social erosion? Evaluating the association between social support and PTSD among Veterans in a transition program. *Journal of Military, Veteran and Family Health*, 5(1), 71-79.
<https://doi.org/10.3138/jmvfh.2017-0040>
- Ehlers, A., & Clark, D. M. (2000). A cognitive model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8(4), 319-345.
[https://doi.org/10.1016/S0005-7967\(99\)00123-0](https://doi.org/10.1016/S0005-7967(99)00123-0)
- Ellis, B. H., Lankau, E. W., Ao, T., Benson, M. A., Miller, A. B., Shetty, S., Lopes Cardozo, B., Geltman, P.L., & Cochran, J. (2015). Understanding Bhutanese refugee suicide through the interpersonal-psychological theory of suicidal behavior.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85(1), 43-55.
<https://doi.org/10.1037/ort0000028>
- Eshbaugh, E. M. (2010). Friend and family support as moderators of the effects of low romantic partner support on loneliness among college women. *Individual Differences Research*, 8(1), 8-16.
<https://psycnet.apa.org/record/2010-05622-002>
- Festinger, L. (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 *Human Relations*, 7(2), 117-140.
<https://www2.psych.ubc.ca/~schaller/528Reading/s/Festinger1954.pdf>
- Gomboc, V., Krohne, N., Lavrič, M., Podlogar, T., Poštuvan, V., Zadavec Šedivy, N., & De Leo, D. (2022). Emotional and social loneliness as predictors of suicidal ideation in

- different age groups.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58(2), 311-320.
<https://doi.org/10.1007/s10597-021-00823-8>
- Hayes, A. F. (2017).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Guilford Publications.
- Hofmann, S. G., Litz, B. T., & Weathers, F. W. (2003). Social anxiety, depression, and PTSD in Vietnam veteran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7(5), 573-582.
[https://doi.org/10.1016/S0887-6185\(02\)00227-X](https://doi.org/10.1016/S0887-6185(02)00227-X)
- Hollingsworth, D. W., Shish, M. L., Wingate, L. R., Davidson, C. L., Rasmussen, K. A., O'Keefe, V. M., Tucker, R. P., Grant, D. M. (2018). The indirect effect of perceived burdensome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ces of social support and suicide ideation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66(1), 9-16.
<https://doi.org/10.1080/07448481.2017.1363764>
- Horowitz, M., Wilner, N., & Alvarez, W. (1979). Impact of Event Scale: A measure of subjectiv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41(3), 209-218.
https://journals.lww.com/psychosomaticmedicine/abstract/1979/05000/impact_of_event_scale__a_measure_of_subjective.4.aspx
- Itzhaky, L., Stein, J. Y., Levin, Y., & Solomon, Z. (2017).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and marital adjustment among Israeli combat veterans: The role of loneliness and attachment.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9(6), 655-662.
<https://dx.doi.org/10.1037/tra0000259>
- Joiner, T. E. (2005). *Why people die by suicide*. Harvard University Press.
https://books.google.co.kr/books?hl=ko&lr=&id=C7uiA5EB5GAC&oi=fnd&pg=PP17&dq=Why+people+die+by+suicide&ots=L8vnYmi4Kd&sig=bhO0j4iZD6TTPYLX9Vz2_SdVcmw&redir_esc=y#v=onepage&q=Why%20people%20die%20by%20suicide&f=false
- Kaniasty, K., & Norris, F. H. (2008). Longitudinal linkages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Sequential roles of social causation and social selection. *Journal of Traumatic Stress: Official Pub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raumatic Stress Studies*, 21(3), 274-281.
<https://doi.org/10.1002/jts.20334>
- Kim, O. S. (1997). Korean version of 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 Reliability and validity test. *The Journal of Nurses Academic Society*, 27(4), 871-879.
<https://synapse.koreamed.org/upload/synapsedata/pdfdata/2006jnas/jnas-27-871.pdf>
- Kim, O. (1999). Predictors of loneliness in elderly Korean immigrant women living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9(5), 1082-1088.
<https://doi.org/10.1046/j.1365-2648.1999.00993.x>
- King, D. W., Taft, C., King, L. A., Hammond, C., & Stone, E. R. (2006). Directionality of the association between social support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1.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6(12), 2980-2992.
<https://doi.org/10.1111/j.0021-9029.2006.00138.x>
- Kleiman, E. M., & Liu, R. T. (2013). Social

- support as a protective factor in suicide: Findings from two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50(2), 540-545.
<https://doi.org/10.1016/j.jad.2013.01.033>
- Kuo, B. C., Huang, S., Li, X., & Lin, D. (2021). Self-Esteem, Resilience, Social Support, and Acculturative Stress as Predictors of Loneliness in Chinese Internal Migrant Children: A Model-Testing Longitudinal Study. *The Journal of Psychology*, 155(4), 387-405.
<https://doi.org/10.1080/00223980.2021.1891854>
- Kuwert, P., Knaevelsrud, C., & Pietrzak, R. H. (2014). Loneliness among older veterans in the United States: Results from the National Health and Resilience in Veterans Study. *The American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22(6), 564-569.
<https://doi.org/10.1016/j.jagp.2013.02.013>
- LeBouthillier, D. M., McMillan, K. A., Thibodeau, M. A., & Asmundson, G. J. (2015). Types and number of traumas associated with suicidal ideation and suicide attempts in PTSD: Findings from a US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Journal of Traumatic Stress*, 28(3), 183-190.
<https://doi.org/10.1002/jts.22010>
- Lee, Y., Lee, M. K., Chun, K. H., Lee, Y. K., & Yoon, S. J. (2001). Trauma experience of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a.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20(3), 225-229.
[https://doi.org/10.1016/S0749-3797\(00\)00282-8](https://doi.org/10.1016/S0749-3797(00)00282-8)
- McClelland, H., Evans, J. J., Nowland, R., Ferguson, E., & O'Connor, R. C. (2020). Loneliness as a predictor of suicidal ideation and behaviour: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prospective studie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74, 880-896.
<https://doi.org/10.1016/j.jad.2020.05.004>
- Mueller, N. E., Duffy, M. E., Stewart, R. A., Joiner, T. E., & Cogle, J. R. (2022). Quality over quantity? The role of social contact frequency and closeness in suicidal ideation and attempt.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98, 248-255.
<https://doi.org/10.1016/j.jad.2021.10.065>
- Nock, M. K., Hwang, I., Sampson, N. A., & Kessler, R. C. (2010). Mental disorders, comorbidity and suicidal behavior: results from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Replication. *Molecular Psychiatry*, 15(8), 868-876.
<https://www.nature.com/articles/mp200929>
- Panagioti, M., Gooding, P., & Tarrier, N. (2009).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suicidal behavior: A narrative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9(6), 471-482.
<https://doi.org/10.1016/j.cpr.2009.05.001>
- Perlman, D., & Peplau, L. A. (1984). Loneliness research: A survey of empirical findings. In L. A. Peplau & S. E. Goldston (Eds.), *Preventing the harmful consequences of severe and persistent loneliness* (pp. 13 - 46).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https://psycnet.apa.org/record/1997-36496-002>
- Procter, N., Othman, S., Jayasekara, R., Procter, A., McIntyre, H., & Ferguson, M. (2023). The impact of trauma informed suicide prevention approaches: A systematic review of evidence across the lifespan.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Nursing*, 32(1), 3-13.

- <https://doi.org/10.1111/inm.13048>
Quijada, Y., Inostroza, C., Vaccari, P., Riese, J., & Hausmann-Stabile, C. (2021). Infusing the trauma-informed approach in youth suicide research: Lessons from the field.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91(5), 579.
<https://doi.org/10.1037/ort0000558>
- Ray, S. L., & Vanstone, M. (2009). The impact of PTSD on veterans' family relationships: An interpretative phenomenological inquiry.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46(6), 838-847.
<https://doi.org/10.1016/j.ijnurstu.2009.01.002>
- Reavell, J., & Fazil, Q. (2017). The epidemiology of PTSD and depression in refugee minors who have resettled in developed countries. *Journal of Mental Health*, 26(1), 74-83.
<https://doi.org/10.1080/09638237.2016.1222065>
- Russell, D., Peplau, L. A., & Ferguson, M. L. (1978). Developing a measure of lonelines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2(3), 290-294.
https://doi.org/10.1207/s15327752jpa4203_11
- Shallcross, S. L., Arbisi, P. A., Polusny, M. A., Kramer, M. D., & Erbes, C. R. (2016). Social causation versus social erosion: Comparisons of causal models for relations between support and PTSD symptom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29(2), 167-175.
<https://doi.org/10.1002/jts.22086>
- Shek, D. T., & Yu, L. (2012). Self-harm and suicidal behaviors in Hong Kong adolescents: prevalence and psychosocial correlates. *The Scientific World Journal*, 2012, 1-14.
<https://doi.org/10.1100/2012/932540>
- Stein, J. Y., & Tuval-Mashiach, R. (2015). Loneliness and isolation in life-stories of Israeli veterans of combat and captivity.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7(2), 122-130.
<https://doi.org/10.1037/a0036936>
- Stewart, M., Simich, L., Beiser, M., Makumbe, K., Makwarimba, E., & Shizha, E. (2011). Impacts of a social support intervention for Somali and Sudanese refugees in Canada. *Ethnicity and Inequalities in Health and Social Care*, 4(4), 186-199.
<https://doi.org/10.1108/17570981111250840>
- Stewart, M., Simich, L., Shizha, E., Makumbe, K., & Makwarimba, E. (2012). Supporting African refugees in Canada: Insights from a support intervention. *Health & Social Care in the Community*, 20(5), 516-527.
<https://doi.org/10.1111/j.1365-2524.2012.01069.x>
- Tarrier, N., & Gregg, L. (2004). Suicide risk in civilian PTSD patients: Predictors of suicidal ideation, planning and attempt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39, 655-661.
<https://doi.org/10.1007/s00127-004-0799-4>
- van der Velden, P. G., Pijnappel, B., & van der Meulen, E. (2018). Potentially traumatic events have negative and positive effects on loneliness, depending on PTSD-symptom levels: evidence from a population-based prospective comparative study.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53(2), 195-206.
<https://doi.org/10.1007/s00127-017-1476-8>
- Van Orden, K. A., Cukrowicz, K. C., Witte, T. K., & Joiner Jr, T. E. (2012). Thwarted

- belongingness and perceived burdensomeness: construct validity and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Interpersonal Needs Questionnaire. *Psychological Assessment*, 24(1), 197-215.
<https://doi.org/10.1037/a0025358>
- Van Orden, K. A., Witte, T. K., Cukrowicz, K. C., Braithwaite, S. R., Selby, E. A., & Joiner Jr, T. E. (2010). The interpersonal theory of suicide. *Psychological Review*, 117(2), 575-600.
<https://doi.org/10.1037/a0018697>
- Weiss, D. S. (2007). The Impact of Event Scale: Revised. In: J. P. Wilson & C. S.-k. Tang (Eds.), *Cross-Cultural Assessment of Psychological Trauma and PTSD* (pp. 219-238). Springer, Boston, MA.
https://doi.org/10.1007/978-0-387-70990-1_10
- Weiss, R. (1973). *Loneliness: The experience of emotional and social isolation*. MIT press.
[https://books.google.co.kr/books?hl=ko&lr=&id=W_r9NEAAAQBAJ&oi=fnd&pg=PA27&dq=Weiss,+R+\(1973\).+Loneliness:+The+experience+of+emotional+and+social+isolation.+MIT+press.&ots=nt7Zjv2cHM&sig=TFHTjsthN4P6dxi8S4ZAh1XlJs4#v=onepage&q&f=false](https://books.google.co.kr/books?hl=ko&lr=&id=W_r9NEAAAQBAJ&oi=fnd&pg=PA27&dq=Weiss,+R+(1973).+Loneliness:+The+experience+of+emotional+and+social+isolation.+MIT+press.&ots=nt7Zjv2cHM&sig=TFHTjsthN4P6dxi8S4ZAh1XlJs4#v=onepage&q&f=false)
- Wilson, C., Pence, D. M., & Conradi, L. (2013). Trauma-informed care. In *Encyclopedia of social work*.
<https://doi.org/10.1093/acrefore/9780199975839.013.1063>
- Zhang, X. & Dong, S. (2022). The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support and loneliness: A meta-analysis and review. *Acta Psychologica*, 227, 1-11.
<https://doi.org/10.1016/j.actpsy.2022.103616>
- Zheng, F., Wu, W., Wang, L., Ngoubene-Atioky, A. J., & Chen, L. (2021). Childhood trauma and suicidal ideation among Chinese female prisoners: the mediating roles of negative emotions and social suppor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68, 1-7.
<https://doi.org/10.1016/j.paid.2020.110405>
- Zimet, G. D., Dahlem, N. W., Zimet, S. G., & Farley, G. K. (1988).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1), 30-41.
https://doi.org/10.1207/s15327752jpa5201_2

원고접수일 : 2023. 05. 12.

수정원고접수일 : 2023. 06. 27.

게재확정일 : 2023. 06. 29.

The Association between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and Suicidal Behavior in North Korean Defectors: Social Support and Loneliness as Sequential Mediators*

Yejin Kim¹⁾ Hyein Chang^{2)†} Ji Hyun An³⁾ Jin Pyo Hong^{4)‡} Seo Hyun Jeong⁵⁾

¹⁾Department of Psychology, Sungkyunkwan University, Graduate Student

²⁾Department of Psychology, Sungkyunkwan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³⁾Department of Psychiatry, Samsung Medical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M.D.

⁴⁾Department of Psychiatry, Samsung Medical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M.D., Ph.D.

⁵⁾Department of Psychology, Sungkyunkwan University, M.A.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loneli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osttraumatic symptoms and suicidal behavior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The participants were 199 North Korean defectors (43 males, 156 females) who completed a set of self-report questionnaires that measured posttraumatic symptoms, social support, loneliness, and suicidal behavior at baseline(Time 1). After two years(Time 2), participants reported their suicidal behavior. The relationship between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at Time 1 and suicidal behavior at Time 2 was significantly mediated only by loneliness at Time 1, and not by social support at Time 1. Furthermore, social support and loneliness at Time 1 sequentially mediated the association between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at Time 1 and suicidal behavior at Time 2.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elucidating the underlying processes that may lead to high suicidality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focusing on interpersonal factors and highlighting social support and loneliness as potential targets for intervention.

Key words : North Korean defectors, suicidal behavior,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social support, loneliness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Korea Healthcare Technology R&D project,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public of Korea(HM15C1072).

This paper is a revision and supplementation of a poster presented at the 2023 APS(Association for Psychological Science) Annual Convention.

† Corresponding author : Hyein Chang /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kyunkwan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25-2 Sungkyunkwan-ro, Jongno-gu, Seoul, Korea / Tel: +82-2-760-0490 / E-mail: hichang@skku.edu

‡ Corresponding author : Jin Pyo Hong / Department of Psychiatry, Samsung Medical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M.D., Ph.D. / 81 Irwon-ro, Gangnam-gu, Seoul, Korea / Tel: +82-2-3410-3585 / E-mail: suhrhong@gmail.com